

돈을 제대로 알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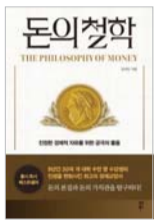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돈의 철학

임석민 지음

“돈에 대한 부정적 믿음들은 돈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문제이지 돈이 악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지위를 높이거나 낮추고, 상금을 주거나 벌금을 물리며, 생명을 구하거나 죽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이다. 악의 뿌리는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양날의 칼과 같은 돈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지만 웬지 말하기 꺾여온 대상이 있다. 바로 돈이다. 돈만큼 이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도 많지 않다. 돈을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근심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사랑 같은 가치를 돈과 교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교환될

수 있다.

한신대 명예교수인 임석민 박사는 “행복, 사랑, 아름다움, 진실, 안정은 심리적 요소이다. 돈은 생활수준은 물론 정신상태를 좌우한다. 돈은 자신감의 형성에 결정적 작용을 한다”고 강조한다.

임 교수가 최근 발행한 ‘돈의 철학’은 돈의 본질과 돈의 가치를 탐구한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궁극의 물음”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경영학자의 철학적 응답인 셈이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2000권이 넘는 참고 도서와 240여 권의 심층 도서를 탐독해 ‘돈과 삶’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30여 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은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삶의 변화’를 권인했다.

저자의 돈에 대한 인식은 “돈을 알면 내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에 닿아 있다. 이 말에는 삶의 통찰 외에도 경제학, 철학, 인생론, 행복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득한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위대한 철학자들은 돈을 어떻게 봤을까.

스피노자는 ‘돈은 인생의 축소판’,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돈은 감정적 실제’라고 정의했다. 인간은 돈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돈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이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돈에 끌려 다니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 돈이 없어 쪼들때만 사람이라면 돈의 무서움을 절감한다. 돈은 왕이다. 돈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은 불



돈은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골드바(왼쪽)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 지폐.



행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다.”

저자는 돈을 매개로 인간과 삶, 세상을 조망한다. 또 철학의 지혜를 빌려 돈을 현실적으로 해부하며 돈이 어떻게 도구에서 지배자의 지위에 오르게 됐는지, 배경과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부자의 선행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부에 대한 열망과 의지다. 저자는 “성공학자들은 부와 성공의 비결로 ‘유인력’의 개념과 ‘생각의 현실화’를 강조한다”며 “만유인력의 우주법칙이 정신적 영역에도 작용하며, 생각의 자력처럼 그 대상을 끌어들이는”고 강조한다.

또한 백만장자들은 근검약약이 몸에 배 있다. 어떤 직종이든 저축하고 투자하는 원칙을 세우고 일찍부터 시작했다.

“왜 당신은 부자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가? 수비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부를 일구는 데 저축은 수비요, 투자는 공격이다. 많은 고소득자들이 소비에 약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공격과 소비에 모두 능하다. 그들은 훌륭한 수비 덕분에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다.”

2600년 전, 플라톤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물론 부기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지만 돈이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인생의 성패는 각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우열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후대에 정신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 또한 성공의 한 부분인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인간의 이해가 철학의 한 장르라면 ‘돈의 철학’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돈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가 적절하지 성찰해보라는 의미다.

〈다산북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의 아름다움

조용미 지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일만마리 물고기야 산을 날아오르라”의 시인 조용미가 신작 시집 ‘당신의 아름다움’을 펴냈다. 그동안 시인은 깊고 섬세한 시선으로 생의 풍경들을 응시해온 작품들을 발표했다. ‘나의 다른 이름들’ 이후 4년 만에 펴낸 이번 신작 시집은 고통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상처의 미학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달을 수 없는 당신을 통해 삶을 느낀다. “환한 어둠”(‘어둠의 영역’) 속에서만 포착 가능한 마음의 괴로움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고통의 순례자’를 자처한다. 그렇다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당신’의 실체는 무엇일까. 아니 누구일까.



“나는 당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천천히/ 맥목을 덮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푸르고 장백하고 연약한’ 부분에서)

위 시의 ‘맥목’이라는 시어는 망자의 얼굴을 싸매는 형질을 일컫는다. “당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있었던 나는 얇은 천하나로 가려진 당신을 향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다가온다. 또 다른 시 ‘사랑의 비유’ 가운데는 “지구의 어딘가에서/ 나였던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물어본다/ 몸 안에서 피가 줄줄 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의심도 없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마치 나와 “나였던” 누군가의 위치가 뒤바뀐 듯한 의미로도 다가오는데, 당신은 또 다른 나를 의미하는 것 같다.

시인의 시적 성취는 고통과 정신의 고크랑을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해설을 쓴 장철환 문학평론가는 “조용미의 시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감각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정밀하게 보여준다는 데에서 빼어난 미적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을의 진화

간다 세이지 지음, 류석진 의 옮김

일본 도쿠시마현 외곽에 위치한 해발 1000미터 높이의 산간마을 가미야마. 이곳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과 변화된 시대에 맞춰 혁신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주한다. 모든 직원들이 매일 아침 비슷한 복장과 표정으로 같은 장소에 출근해 같은 시간에 점심식사를 하는 보편적인 직장 문화와는 다르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업무 혁신을 찾아 떠난 사람과 기업이 산골 마을에서 해답을 찾은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됐다. 아사히 신문 기자인 가나다 세이지가 펴낸 ‘마을의 진화’는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서 만난 미래를 다룬다.

이곳에서는 시냇물에 발을 담근 채 컴퓨터로 화상회의를 하는 프로그래머, 회사 마당에 설치한 해먹에 누워 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모습이 일상적이다. 통상 IT 기업 종사자를 떠올리면 대도시 빌딩에서 정장차림으로 일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지만 이곳 산골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가미야마 마을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과 원격 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IT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온 예술가,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우고픈 젊은 부부 등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곳에선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진다. 이주자들과 원주민이 함께 세운 농업생산 법인 ‘푸드허브’는 가미야마에서 기르거나 지역 농가에서 구입한 식재료로 인근 식당, 빵집에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영농인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지역 식재료에 맞는 신 메뉴를 개발하거나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업체험과 먹거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밖에 주택을 건설해 이주자와 마을주민이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반비·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검은색

알랭 바디우 지음, 박성훈 옮김

공군 군악대 소속의 병장이던 겨울잠, 난로를 끄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어둠, 그것은 어둠일 뿐! 더 이상 희망은 없어”라며 상상을 노래한다. 여덟 살 때는 빛이 들지 않는 복도에 아이 둘을 서 있게 하는 ‘한밤의 소리’ 게임에서 어둠을 경험했고, 열 살엔 농장에서 우유를 가져오라는 밤길 심부름에서 만난 검은 개로 인해 두려움이 떨었다.



검은색에 관한 사유들을 담은 ‘검은색(LE NOIR)’이 출간됐다. 프랑스 철학자인 저자 알랭 바디우는 ‘무색의 섬광들’이라는 부제로 ‘검은색’ 앞에 떠올리는 21가지의 사유를 이야기 한다.

어둠, 밤, 석탄, 잉크, 검은 개, 음울함, 적과 흑, 블랙 유머, 고래, 검은 표범, 흑인 등 그가 검은색에서 연상해낸 주제는 예술 정치 철학의 영역을 넘나든다.

‘인크통’에서 그는 “글을 배우며 접하게 된 까만 인크통은 문장이 굵아져 나오는 기적, 문자가 된 사유에 대한 경이로움을 발견케 하는 매개가 된다”고 전하며 ‘검은색 표시’에서는 “서구의 예로시티즘에서 검은색은 대상의 내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어떠한 몸도 육망의 암흑 속에서 검은색으로 치장된 동일한 몸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자체로 할 능력은 없다”고 말한다.

바디우는 또 검은색에서 변증법을 발견한다. 그가 말하는 ‘검은색의 변증법’은 무색(無色)으로서의 검은색과 모든 색의 뒤섞임인 흰색 사이의 내적 논리다.

마지막 장 ‘백인들의 발명품’에서 저자는 “인간이 바라는 보편적 차원에서는 백인도 흑인도 결코 실존할 수 없다. 인류는 그 자체로 색깔이 없다”고 말한다.

〈민음사·1만2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시민공간으로 부활 전일빌딩 245

- 광주의 시간 새겨 리모델링, 개관 눈앞
- 언론 1번지·문화 중심, 공간의 역사
- 전일빌딩 245 성공을 위한 조건

문화 기획

문화 예술인 지원, 창작의 자생력을 키우자

클릭, 문화현장⑥-부안, 전주
부안청자박물관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돈다⑥
섬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베를린 박물관섬

스포츠 이야기
고향팀에서 마지막 꿈 펼치는 KIA 타자 최형우

예향 초대석

식물 지킴이,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위로 주는 ‘나의 나무’ 심어보세요”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⑦
작가 조정래의 치열한 창작여정
벌교 태백산맥문학관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④
시민참여가 빛나는 디자인 도시
핀란드 헬싱키

문화 트렌드
공연장이 더
친근해졌어요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거냥②
다견가정 별 달 밤이네
‘함께 있을 때 충만’

전시 리뷰
ACC <이주 서사>전
유현준의 도시건축⑧
종교는 공간을 원한다

세계 권위 대중문화상
수상의 역사와 의미

건강 정보
가족 면역력 키우기,
봄나물을 추천합니다

사육사육 남도 한 바퀴-담양
자연, 인문 향기 쫓아
담양 새봄 여행
- 싱그런 생명, 소담한 문화
- 상큼한 딸기, 달콤한 유과